

국회 예결소위,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 돌입

특활비·예비비·관세 대응···운영위 등서 격돌 예고

향소포기·특검 정국 겹치며 예산전쟁 격화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이하 예결소위)가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올해보다 약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켜내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버리는 야당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관련 예

산까지 총들이 가시화되면서 대장동 판결 향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자칫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소위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 소위는 17일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이다. 하지만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비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버리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 권력기관 특활비

를 ‘짚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전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2조 4000억원)를 다시 4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향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

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부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깎깎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상임위의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은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5700억원)은 소위에서 감액됐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300억원) 예산도 절반인 3150억원만 통과됐다.

민주당 예결소위에서 이를 원안대로 되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14일 전남도청에 조성된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참여단. 지역 어린이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청 광장, 일상 품은 ‘전남OK도민광장’으로 재탄생

2만㎡ 규모 총 37억원 투입···약 9개월만 완공

전남도청사 앞 광장이 일상형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헬기장 기능 중심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이곳이 도민의 휴식과 문화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형 광장으로 본격 개장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도청사 앞에서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을 열고 새 광장의 공식 운영을 알렸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전경선 도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지역

어린이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변화와 함께 축하했다.

이번 광장 조성사업은 2만㎡ 규모로 추진됐으며 총 3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6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공사에 들어가 약 9개월 만에 완공됐다.

광장은 ‘사계절 공공정원’을 콘셉트로 상징공간, 열린마당, 장미원, 축제꽃마당 등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 의견수렴과 도민 설명회를 거쳐 그늘쉼터와 수

공간 등이 반영되었다. 도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이번 사업 전반에 적용된 셈이다.

이미 지난 10월 도민의 날 행사에서는 전남문화재단이 준비한 재즈 콘서트, 수목아트패션쇼 등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광장 재탄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새 명칭은 도민 참여 방식으로 확정됐다. 네이밍 공모전에는 736건이 접수됐고, 1·2차 심사와 2700여명이 참여한 국민투표를 거쳐 ‘전남OK도민광장’이 최종 선정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과 임직원 덕분에 도청 앞 광장이 도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OK도민광장을 도민의 소통·문화·휴식이 공존하는 대표 열린 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광장 운영의 첫 프로그램으로 올겨울 1200㎡ 규모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에게 특별한 겨울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AI실증도시로 나아가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열고 광주 AI산업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이 ‘광주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계획’을, 강재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미래전략실장이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강수훈 위원장과 홍기월 부위원장, 안평환 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지역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NPU로의 인프라 전략 전환,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 AI 인재양성 및 교육 강화, AI 예산 집행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1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GPU 지원 기간 연장, 지역기업 참여 확대, 실증사업 다각화 등을 요청했다”며 “AI특위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AI실증도시로 나아가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과 관련해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X실증밸리 사업의 본질은 광주 지역 기업과 기관을 육성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광주시의회 AI특위 간담회···기업 실증 애로 등 청취

AX실증밸리·NPU 전략 등 인공지능 정책 방향 논의

김운섭 본부장은 “AI의 미래는 퍼지컬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으며, 광주는 자동차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조 혁신 허브로도 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미래전략실장은 “광주가 1단계에서 확보한 인프라와 인재 기반을 토대로 시민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도시로 나아가겠다”며 6000억원 규모의 ‘AX실증밸리’ 2단계 계획을 소개했다.

AX실증밸리 사업은 ‘모두의 AI’ 구현,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AX 촉진 거점 구축 등 네 분야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등 다부처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X실증밸리 사업에 광주 기업 참여 확대, GPU에서

“GPU에서 NPU로의 전략 전환은 비싼 GPU 대신 국산 NPU를 활용해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은 “GPU 확보가 중요하지만, 학습 이후의 ‘활용 단계’에서는 NPU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광주는 이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산업 기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최현호 페니브라운 대표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까지는 잘하지만 시민들과 실제로 만나게 하는 판매·실증 단계가 약하다”며 “실증사업이 현장과 맞지 않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마케팅 회사라든지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제로드된 필드’를 가진 사업자들과 연결해 더 실질적인 실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북구청장 도전’··· 김동찬 전 의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정치인 초청 관현 탈피, 지역민 중심 행사 진행 주목

광주 미래 비전·청년 희망 담은 저서로 새 도약 선언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수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저서 ‘김동찬의 출발’ 출판기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소상공인 대표, 지역 경제·노동계 및 종교계 인사, 시민, 지지자 등 3000여명이 이상이 참석해 행사장 안팎을 가득 메웠다.

이번에 출간된 저서 ‘김동찬의 출발’은 김 전 의장이 지난 수년간 광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성과를 회고하고, 광주와 북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다.

특히 그는 책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청년이 머무는 희망의 도시 건설,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 소개, 축하, 그리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저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더욱이 축하에는 지역의 남·녀 청년들이 나서 청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없이 전달해 눈길을 모았다.

김 전 의장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대화 시간 동안 시종일관 진솔하고 소탈한 화법으로 청중과 교감하며, 광주 북구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수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동찬 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할 중요한

기회에 있다”며 “출간서 제목인 ‘출발’은 단순한 시작을 넘어,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큰 광주와 북구를 만

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광주의 미래는 ‘사람’에 있다”면서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평소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 김 전 의장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대성황을 두고 김 전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선 것으로 해석하며, 그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